

친환경농업인의 가치관 확립

이 현 복

양평친환경농업인 연합회장

잘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 명예, 학벌, 돈..... 흔히들 돈을 잘 벌면 잘산다고 하는 것입니까?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 명예, 학벌, 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권력, 명예, 학벌은 돈과 어떤 관계입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살기 위해 먹는 것입니까?**

아무튼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봄이 인간의 기본임에도 누구나 그리 자기자신에 비추어 신중히 생각해 볼 시간조차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 명예, 학벌, 돈 같은 것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는 세상인 한, 아니 그런 것을 거머쥔 자는 잘산다고 출세했다고 칭하는 사회인 한 배움, 만남, 생각 등 모든 삶의 형태가 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인은 권력, 명예, 학벌, 돈을 거머쥔 수 있는 직업입니까?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버느냐가 더 우리의 생각 속에 잠재해 있다면 결코 우리는 잘사는 사회를 만들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농업은 우리 농민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반 없습니다.

하늘, 땅, 인간, 합작의 산물이 농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땅, 인간이 잘 조화를 이뤄 풍년이 들면, 뭐하고,

하늘, 땅, 인간이 잘 조화를 못이뤄 흉년이 들면 뭐하나 어느 것 하나 돈 벌긴 힘든 일인데.

예로부터 농민은 배터져 죽은 사람도, 배꼽아 죽는 사람도 드물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지으면서 권력, 명예, 돈을 바라본다는 것은 괜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 명예, 돈을 바라본다면 농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삶의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현 우리사회의 흐름을 외면하고 진실한 삶의 목표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음은 잘 압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외면하고는 안되는 직업인데 어찌란 말입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기는 마음에서 지는 마음으로, 갖는 마음에서 주는 마음으로, 죽이는 마음에서 살리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진정한 농심이고 인심이고, 살맛나는 가정,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임을 지칭하는 바탕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농업! 환경농산물! 어떠한 생각 속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혹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라면 그 생각을 버립시다.

우리 농민은 이제 진정한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잘못되어가는 사회구조에 편승하여 발버둥치는 것은 우리농민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요, 나쁜 일만 아니라면 그럴 수 있는 마음이
 행복의 극치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농민은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이나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의 목표인 살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진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음은 지는 마음, 주는 마음, 살리는 마음이 있어야만 생
 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민은 자연과 사람, 이 세상 만물에게 지고, 주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이런 일이라면 어찌 그 작업이 또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 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환경농업은, 환경농업인은

이기는 마음에서 지는 마음으로, 갖는 마음에서 주는 마음으로,

죽이는 마음에서 살리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부터라고.